

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

목장 나눔지 (2024년 3월 31일 - 4월 6일 주간)

1 부: 자녀들과 함께 (Olive Blessing)

1.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

* 기쁨으로 찬양

- 154 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
- 729 장 찬양중에 눈을 들어(호산나)

* 찬송가

- 162 장 부활하신 구세주
- 160 장 무덤에 머물러

2.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(Olive Blessing)

- *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를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.
- *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. 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.

2 부: 따로 모여서

3. 말씀 나누기

“첫 열매”(고전 15:20-26)

- 1) 설교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,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열매가 열리며, 또한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.(v20) 이 부활의 진리는 나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져다 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- 2) 본문 42~49 절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하며, 썩지 않는 몸, 영광스러운 몸, 강한 몸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부활할 몸에 대하여 어떤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.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몇 분이 자원해서 말씀해 주세요.
- 3)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(15:12)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이 부활 신앙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? 옳로(YOLO)족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적용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

4. 연합교회/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

*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.

5. 삶의 나눔

*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.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.

* 지난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.

* 주변에 계신 나의 VIP 들이 누구인지, 그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6. 합심 기도

*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(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니다)

*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

* 개인 혹은 목장이 함께 VIP 를 작성하고 4 월 27 일 VIP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

* 성경통독 일정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

설교요약:

“첫 열매” (고전 15:20-26)

* 오늘 본문은 '그러나'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. 문맥상으로 앞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세상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(12 절). 바울이 살았던 시대 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유물론으로 무장된 이들에게 부활은 터무니

없는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.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'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'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지요?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

1.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(20, 23-24 절).

* 첫 열매를 보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

2.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(35, 42-44, 49 절).

* 부활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?

-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(42 절 하)

-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(43 절 상)

-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(43 절 하)

-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(44 절 상)

적용과 숙제:

*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, 혹은 누군가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'부활'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해 봅시다.

*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강력한 '증인'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'부활 신앙'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할 이들은 누구이십니까? 그분들을 VIP 로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.(주보광고 참조)